

“한가위만 같아라” 자동차업계 명절 혜택 풍성

현대차 쏘나타페 150만원...코나·쏘나타페 하이브리드 100만원 할인 기아, 명절 전 조기출고 혜택...2030 전용·소상공인 특별 프로모션 쉐보레, 볼트EUV 300만원...타 모델 특별 할부·취등록세 지원 등 르노, QM6 등 주력 모델 할인...KG 모빌리티 한가위 세일 페스타

국내 완성차업체가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할인과 무이자 할부를 비롯해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4일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는 추석 명절 전 조기출고 혜택을 준비했다. 오는 15일 이전 출고하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일반 법인이 대상으로, K5(가솔린, HEV, LPI), 카니발(디젤) 50만원, 카니발(가솔린) 30만원 등 할인 혜택을 준다. 이밖에 디젤 소형 트럭을 보유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봉고 EV로 전환 시 50만원을 할인한다. 또 2030세대 전용 콧스타트 프로모션과 소상공인 구매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전기차 전용 할부 프로그램도 내놨다.

전기차 모델인 EV6, EV9, 니로EV, 니로플러스, 봉고 EV 등 구매자를 대상으로, 선수율 1% 이상일 때 36개월 3.5%, 48개월 4.0%, 60개월 4.5% 등 저금리 할부를 제공한다. 선수율 50% 이상이면 36개월 3.0%, 48개월 3.5%, 60개월 4.0%로 월납입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현대차는 코나HEV와 쏘나타페 HEV에 각각 100만원을 할인한다. 또 쏘나타페는 150만원을 할인한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쏘나타페, 쏘나타페 HEV, 팰리세이드 구매 시 30만원의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에코 패밀리 이벤트'를 통해 현대차, 제네시스

친환경차(EV, HEV, PHEV, FCEV) 구매이력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이오닉5·아이오닉6·코나EV·넥쏘 30만원 할인, GV60·G80EV·GV70EV 50만원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수입차 및 제네시스 보유자가 제네시스를 구매하면 제품별로 30만~100만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중 현대차 신차 구매 이력이 있는 2030 세대에게는 20만~50만원을 할인한다. 대상 모델은 코나, 코나HEV, 코나EV, 쏘나타페, 쏘나타페 HEV 등이다. KG 모빌리티는 추석 명절을 맞아 한가위 세일 페스타를 추진한다. 한가위 세일 페스타 적용 모델인 더 뉴 티볼리, 토레스, 렉스턴 스포츠&칸 등을 일시불로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LG 스탠바이미 Go(117만원), LG 코드제로 오브제컬렉션 A9 청소기(128만원), KG M포인트 100만원 중 1가지를 제공한다. 렉스턴 뉴 아레나는 4WD 시스템(195만원)을 무상으로 달아준다. 또 해당 모델을 할부로 구매 시 티볼리와 토레스는 선수금 30% 및 잔금에 대해 1.9% 금리로 60개월 할부, 선수금 20% 및 잔금에 대해 2.9% 금리

60개월 할부, 선수금 없이 전액에 대해 3.9% 금리로 60개월 할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더 뉴 티볼리, 코란도, 토레스도 선수금 없는 12개월 무이자 할부부터 선수금(0%~30%)에 따라 3.7%~5.2%의 60~72개월 할부 등 맞춤형 스마트 할부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쉐보레는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 구매자에게 5.0%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5.5%의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한 특별 할부 혜택(선수율 20%)을 준다. 볼트 EUV를 구매자에게는 콤보 할부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 일시불 구매자에게는 취득세로 150만원을 지원한다. 트래버스는 특별 할부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48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선수율 30%)을 제공하고, 콤보 프로그램 선택 시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일시불로 구매하면 취득세 400만원을 지원한다. 타호는 3.9%의 이율로 최대 60개월까지 가능한 특별 할부 혜택(선수율 30%)을 제공, 콤보 프로그

램 선택 시 최대 250만원, 일시불은 취득세에 50%를 지원한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QM6, XM3 1.6 GTe 등 주력 모델의 가격 할인에 나섰다. LPG 모델 2.0 LPe는 ▲LE 2840만원(91만원 ↓) ▲RE 3170만원(195만원 ↓) ▲프리미에르 3670만원(123만원 ↓) 등 할인에 나선다. 가솔린 모델 2.0 GDe ▲LE 2840만원(41만원 ↓) ▲RE 3170만원(144만원 ↓) ▲프리미에르 3670만원(72만원 ↓)이다. 퀘스트는 ▲밴 2495만원(185만원 ↓) ▲비즈니스 2690만원(120만원 ↓) ▲어드벤처 3020만원(200만원 ↓) 등이다. 특히 쿠팡형 SUV XM3 1.6 GTe는 2024년형 모델 출시에 맞춰 인스파이어 트림을 추가, 290만원 상당의 시그니처 플러스 패키지 옵션이 기본 사양으로 적용되면서도 가격은 2680만원으로 책정됐다. 르노코리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존 모델에 대해서도 SM6 Tce 300 최대 340만원, QM6 LPG 모델 최대 310만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선정

창사 4년만에 쾌거...일자리 창출·노사 상생·공정 채용 호평 신용평가·금리·정책자금 우대...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혜택

전국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GM)가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에 선정됐다. GGM은 일자리 창출과 노사 상생 동반성장, 공정 채용,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창사 4년 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으뜸 기업에 선정돼 인증패를 수여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일자리 창출 규모 ▲일자리 질 ▲고용 안정성 ▲사회 공헌 활동 등을 평가해

100개의 기업(중소기업 47개, 중견기업 33개, 대기업 20개)을 선정, 인증패를 수여하고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GGM은 2019년 9월 20일 법인 설립 이후 62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 중 34세 이하 청년(76%)과 광주·전남 출신 지역인재(96%)를 대거 채용했다. 또 상생협의회와 상생의 일터 실천협회를 운영하고, 매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현황을 설명·공유하는 경영설명회 개최했다. 대표이사 전 사원 간 상생간담회 개최, 상생 제안 제도 운영 등 노사가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

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이밖에 외부 채용 전문업체에 위탁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한 채용과 블라인드 및 AI 역량 검사 도입을 통해 직무능력에 부합하는 인재를 채용하는 등 공정한 채용을 진행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대표이사 주관으로 매월 안전 환경위원회를 열고 매주 현장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에도 힘썼다. 한편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에 선정됨에 따라 GGM은 신용평가 우대와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등 금융 혜택을 비롯해 산재 예방시설 용자금, 환경 정책자금 우선 지원 가점 부여 등 정책자금 우대 혜택은 물론 세무조사 선정 제외와 관세 조사 유예,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조사 관련 혜택을 받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가을맞이 렉서스·토요타 점검 서비스

한국토요타 27일까지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오는 27일까지 전국 렉서스·토요타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가을을 맞아 '렉서스·토요타 세이프티 플러스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캠페인 기간 중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브레이크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 유상수리 항목에 대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안전운전에 필수 점검항목인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브레이크액 ▲미션오일과 오일 가스켓 ▲스파크 ▲플러그 ▲냉각수 ▲타이어 ▲에어클리너 엘리먼트 ▲와이퍼 러버와 블레이드 등을 수리할 경우 부품 및 공임의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차량 점검과 엔진오일 등의 소모품 교체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렉서스 프리미엄 메인テナンス 서비스(PMS) 패키지를 비롯, 토요타 스마트 메인テナンス 서비스

(SMS) 패키지를 구매할 경우 인젝터 클리너를 증정한다. ES, NX, RX 모델의 액세서리 및 렉서스·토요타 전용 플로어 매트(일부 모델에 한정)를 10% 할인한다. 이외 브리지스톤타이어세일즈 코리아가 새롭게 출시한 올웨더 타이어 '파이어스톤 웨더그립'도 10% 할인한다. 강대환 한국토요타자동차 상무는 "장거리 주행이 많아지는 추석 기간 렉서스와 토요타 고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을 지원하고자 이번 서비스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숙련된 서비스 테크니션이 전하는 전문적인 차량 관리를 체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요타자동차는 렉서스·토요타의 중고차 구매 후 렉서스·토요타 공식 서비스 센터에 처음 입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약 40여개 항목의 유상점검을 무상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상시 실시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는 주행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N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 N'을 출시했다. <현대차 제공>

609마력·제로백 3.4초... '괴물' 아이오닉5 N 나왔다

현대차, N 브랜드 최초 고성능 전기차 출시...첨단 전동화기술 집약

현대자동차는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N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 N'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아이오닉5 N은 고성능 사륜구동 시스템, 84.0kWh의 고출력 배터리와 고성능 EV 특화 열관리 제어 시스템 등 다양한 고성능 전기차 N 전용 기술들을 적용해 압도적인 주행 성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아이오닉5 N은 합산 448kW(609마력)의 최고 출력과 740Nm(75.5kgf·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전·후륜 모터가 탑재됐으며, 일정 시간동안 출력을 크게 높여 최대 가속 성능을 발휘하는 모드인 'N 그린 부스트'(N Grin Boost, NGB)를 사용하면 합산 최고 출력이 478kW(650마력), 최대 토크가 770Nm(78.5kgf·m)로 증가해 3.4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도달할 수 있다.

아이오닉5 N은 ▲회생제동을 활용해 코너링에 도움을 주는 'N 페달(N Pedal)' ▲원활한 드리프트 주행을 돕는 'N 드리프트 옵티마이저(N Drift Optimizer)' ▲전·후륜의 구동력을 운전자가 직접 분배할 수 있는 'N 토크 디스트리뷰션(N Torque Distribution, NTD)' 등 다양한 특화 사양을 적용해 우수한 코너링 성능을 선사한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또 주행 시작 전에 적절한 온도로 배터리를 예열·냉각해주는 'N 배터리 프리컨디셔닝', 최적의 성능으로 트랙을 달릴 수 있도록 배터리 온도를 제어하는 'N 레이싱' 등 혁신적인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이 탑재돼 가혹한 트랙 주행 상황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밖에 모터 제어를 통해 내연기관 차량의 변속 느낌을 제공하는 가상 변속 시스템 'N e-쉬프트'와

차량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들을 수 있는 고성능 전기차용 가상 사운드 시스템 'N 액티브 사운드 플러스'를 적용해 운전의 재미를 높인 게 특징이다. 아울러 ▲N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 ▲EV N 전용 루미너스 오렌지 스트립 ▲N 전용 리어 스포일러 등 차별화된 디자인 사양을 적용했고, 실내에도 N 브랜드 디자인 사양을 적용한 ▲스티어링 휠 ▲도어스커프 ▲메탈 페달 ▲버킷 시트 등을 통해 N만의 감성을 부각했다. 아이오닉5 N은 단일 트림으로 운영되며 판매 가격은 개별소비세 5% 및 친환경차 세제 혜택 후 기준 7600만 원이다.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에 따라 실제 구매가격은 더 낮아질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5 N은 일상 주행뿐만 아니라 트랙 주행에도 특화된 N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라며 "아이오닉 5 N을 시작으로 전동화 시대에도 변치 않는 N 브랜드의 DNA를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연말까지 전기차 전용 타이어 이벤트

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과 제휴 특별 할인가·충전포인트 지급

금호타이어는 전기차 충전 통합 솔루션 기업 '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KEVIT)과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전기차 전용 타이어 구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KEVIT은 4년 연속 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자로 전국에 초고속충전기 및 완속충전기를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KEVIT 모바일 앱을 통해 KEVIT 회원 전용 금호타이어 온라인몰에서 전기차 전용 타이어 '마제스티9 EV SOULS TA 91'과 '크루젠 EV HP71' 등 전기차 전용 타이어

를 할인가로 제공한다. 또 연말까지 전기차 전용 타이어 2개 구매 시 KEVIT 포인트 2만 포인트, 4개 구매 시 4만 포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벤트로 증정되는 KEVIT 충전포인트는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하는 포인트로 전국 환경부, 한국전력, 서울시 등 공공 충전소와 KEVIT 충전소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임병석 한국영업담당 상무는 "금호타이어가 충전기 제조 및 운영, 충전서비스 등 전기차 충전 통합 솔루션 플랫폼을 운영중인 KEVIT과 협업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금호타이어를 이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다양한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전기차용 운전자들께 다각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